

송주호의 테마 클래식 7 - 여행

글.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EBS 기술기획부 선임

휴가의 계절이자 여행의 계절, 8월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받아보신 때에는 이미 바다로, 산으로, 그리고 외국으로 저마다 다른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행으로 들뜬 마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가들도 물론 그러했죠. 여름이 되면 경치 좋은 시골 마을의 별장으로 몇 개월간 떠나있기도 했고, 여러 도시와 여러 나라를 거쳐 연주여행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죠. 특히 작곡가들은 이러한 휴식기에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거나 완성하기도 했고, 여행지의 인상을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은 작곡가들이 남긴 여행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모차르트 : '아! 할 말이 있어요, 엄마'

주제에 의한 열두 개의 변주곡, K. 265/300e (1778)

음악가의 여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사람,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 1756~91)입니다. 그는 평소에 '여행 중'일 정도로 연주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과도한 여행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할 정도죠. 그중에서 비교적 일정이 긴 여행이 네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우 만 7세 반에 시작되어 3년 이상 지속된 모차르트 가족의 '그랜드 투어'(1763. 6~1766. 11.)였습니다. 고향인 잘츠부르크에서 출발하여 독일의 뮌헨, 만하임, 프랑크푸르트, 쾰른, 벨기에의 리에주, 브뤼셀, 헨트, 안트베르프, 헤이그, 암스테르담, 할렘, 위트레흐트, 영국의 런던과 도버, 프랑스의 칼레, 파리, 디종, 리옹, 스위스의 제네바와 취리히 등 서유럽의 거점들을 찍었죠. 집에 돌아오니 모차르트는 어느덧 10대가 되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여행(1769. 12~1771. 3.)으로, 잘츠부르크에서 출발하여 인스부르크를 거친 후 베로나, 만투아, 밀라노, 베네치아,

볼로냐, 피렌체, 로마, 나폴리 등 1년 이상 이탈리아를 여행했습니다. 오페라의 나라에서 자신의 명성도 쌓고,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1777. 9~1779. 1.)은 성인이 된 이후 모차르트의 첫 장기 여행입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출발하여 아우크스부르크, 만하임, 파리를 찍고 뮌헨을 거쳐 돌아오게 되는데요, 앞선 그랜드 투어의 축소판이죠. 네 번째 여행(1789. 4. 8~6. 4.)은 빈으로 거점을 옮긴 후로, 2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빈에서 출발하여 프라하,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베를린까지 빈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 돌아왔습니다.

모차르트는 이러한 크고 작은 여행에서 얻은 인상을 음악에 표현해곤 했습니다. 지명이 부제로 붙어있는 작품들이 특히 그러한데요, 교향곡을 예로 들자면 <교향곡 31번 '파리'>(1778), <교향곡 36번 '린츠'>(1783), <교향곡 38번 '프라하'>(1786) 등이 있지요. 지명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의 유명한 선율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이 여기에 속합니다.

<작은별 변주곡>의 멜로디는 18세기 중엽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1761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별'은 아니고요, '아! 할 말이 있어요, 엄마'(Ah! vous dirai-je, maman)입니다. 총 다섯 절로 되어있는 이 가사 중 첫 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 할 말이 있어요, 엄마. 절 괴롭히는 것이 뭘지 아세요? 아빠는 제가 이성적이길 원해요. 어른처럼요. 저는 달콤한 게 이성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진지하고 철학적이기도 한 가사는 금세 잊혀지고 '작은별'이나 '알파벳송'을 비롯한 단순한 내용으로 바뀌어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도 모차르트를 비롯하여 J.C.F. 바흐, 아돌프 아당, 카미유 생상스, 리스트 페렌츠, 존 코릴리아노 등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차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제프 하이든도 <교향곡 94번 '놀람'>의 2악장의 첫 멜로디는 이 노래를 변형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나요?

이제 이름을 고쳐서, <'아! 할 말이 있어요, 엄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언제 작곡되었는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1778년 파리 여행 중에 이 멜로디를 알게 되어 이 곡을 썼다는 것이 유력한 의견입니다. 이 곡은 모두 열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제시한 후 열두 개의 변주가 이어지죠. 이 열두 개의 변주 기법은 매우 규칙적이면서도 훌륭하여 변주곡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 : youtu.be/7BTvoqVK420

> 비외탕 : 미국의 추억, Op. 17 (1843)

음반이 없었던 시절, 음악가들은 자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주 여

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미국 여행이 음악가들의 로망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야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에 있어서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주척 측은 파격적인 개런티를 제안해야 했고, 또한 그러면서까지 모셔간다는 것은 그 위상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은 한 번쯤 미국 여행을 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앙리 비외탕(Henri Vieuxtemps : 1820~81)도 당시 미국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외탕은 파가니니, 로도, 베리오 등을 잇는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바이올린 파트에 높은 연주력을 요구하는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가단조, Op. 37>(1861)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죠.

비외탕은 그 힘들다는 미국 여행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1차 미국 여행은 1843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6개월간이었으며, 보스턴, 뉴올리언스 등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비외탕을 그다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클래식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흥행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그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곧바로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아메리카의 추억, Op. 17>(Souvenir d'Amérique : 1843)이었죠.

이 곡은 북부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선율인 '양키 두들'을 주제로 하는 변주곡입니다. '양키 두들'은 본래 유럽에서 유행했던 선율인데요, 가사로 보아 네덜란드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채를 감아 던지면 곳곳하게 서서 뱅글뱅글 뱅글뱅글 잘도 도는 팽이. 팽이하고 나하고 한나절을 놓고, 팽이 따라 뱅글뱅글 나도 돌며 놓고'라는 가사가 붙여져 동요로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선율은 남북전쟁(1861~65) 등에서 애국가처럼 불릴 정도로 19세기 미국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애창곡이었습니다. 비외탕이 이 곡으로 변주곡을 연주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음악회는 갑자기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나는

유명해졌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회를 얻어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연주여행이 대성공으로 1857년에 다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추천 영상 : youtu.be/fZWMSxLDwpA

> 차이코프스키 : 현악육중주 라단조, Op. 70

'피렌체의 추억' (1890)

표트르 차이코프스키(Pyotr Tchaikovsky : 1840~1893)는 오늘날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생존 당시에도 뛰어난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여러 비난 또한 거셨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약하고 유럽의 낭만음악을 모방한다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색이 짙어서 보드카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이 당혹스러운 진퇴양난의 위치에서도 차이코프스키는 훌륭한 음악을 발표하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차이코프스키는 유럽에서 초연을 할 정도로 유럽 지향적인 작곡가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 작곡가로서 유럽에 자주 방문하는 작곡가이기도 했죠.

차이코프스키는 주로 겨울에 살벌한 추위를 피해 스위스나 이탈리아에 가곤 했습니다. 1890년 초에 선택한 여행지는 이탈리아의 예술도시 피렌체였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곳에서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1890)을 완성했죠. 러시아로 돌아온 그는 따뜻하게 보냈던 겨울날을 추억하며 1887년에 썼다가 중단했던 현악육중주 작곡을 재개하여 그해 6월에 <피렌체의 추억>(Souvenir de Florence : 1890)을 완성했습니다. 초연은 2년이 더 지난 1892년 11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루어졌죠.

차이코프스키는 이 곡의 첫 악장에 대해 "상당히 활기 있게"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터져 나오는 거칠고 공격적인 바이올린 주제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악장의 마지막 코다 부분에는 <스페이드 여왕>의 두 선율을 인용하여 피렌체에서의 한때를 그리는 곡이라는 메시지를 새겨 두었습니다.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에서는 낭만적인 멜로디도 아



1. <'아! 할 말이 있어요, 엄마' 변주곡>을 연주하는 ALBERTO LODOLETTI
2.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3. <미국의 추억>을 연주하는 CHRISTINE LEE
4. 앙리 비외탕



름답지만, 비올라와 첼로의 중저음 반주가 만드는 차분하고 풍부한 음향은 감동을 더합니다. 특히 피치카토 반주 위에서 연주되는 순수하고 단아한 멜로디는 <현악사중주 1번>(1871) 2악장의 유명한 ‘안단테 칸타빌레’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3악장은 당시 잘 알려진 대중적인 선율에 바탕을 둔 비올라의 주제가 전체를 지배하고, 4악장은 러시아 민속음악 스타일의 무곡 풍 주제로 드라마틱하게 진행하며 마무리합니다.

추천 영상 : youtu.be/vulKECq4r60

> 세르베 : 스파의 추억, Op. 2 (1844)

오케스트라가 애국가를 연주할 때 유일하게 앉아서 연주하는 악기는? 바로 첼로입니다. 첼로는 앉아서 연주하는 악기죠. 가슴팍만 한 크기의 몸통을 가진 첼로를 어깨에 받히기는 버겁겠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 bap. 1567~1643)가 자신의 오페라 <오르페오>(1607)의 악보에 악기 편성으로 적은 ‘basso di viola da braccio’, 즉 어깨에 놓고 연주하는 저음 현악기의 의미, 이탈리아의 작곡가 바르톨로메오 비스만토바(Bartolomeo Bismantova : 1675~1694)가 1694년에 ‘비올론첼로 다 스파라’(violoncello da spalla)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수평에 가깝게 가슴을 가로질러 오른쪽 어깨로 지탱한다고 말한 것,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학자였던 야콥 아들룽(Jakob Adlung : 1699~1762)이 비올론첼로에 대해 ‘비올라 다 스파라’(viola da spalla), 즉 어깨에 놓고 연주하는 현악기라고 설명한 것, 세바스티앙 드 브로사르(Sébastien de Brossard : 1655~1730)가 1703년에 간행한 프랑스의 첫 음악사전에서 ‘이탈리아의 비올론첼로’(violoncelle des Italiens)와 어깨에 놓고 연주하는 프랑스 악기인 ‘5도 비올라’(quinte de violon)를 비교한 것, 레오폴트 모차르트(Leopold Mozart : 1719~1787)가 1756년에 “오늘날에는 첼로도 마찬가지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연주한다”고 언급한 것 등에서, 예전에는 첼로를 들고 연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 이후 고전 시대가 되면 첼로는 ‘당연히’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앉아서 연주하는 악기로 인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역

시 편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악기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기 때문이었죠. 이를 개선한 것이 바로 ‘엔드핀’이었습니다. 첼로 밑에 핀을 붙인 것이죠.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벨기에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아드리앵-프랑수아 세르베(Adrien-François Servais : 1807~1866)였습니다. 그는 이 장치로 더 이상 악기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악기를 더욱 과감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첼로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는 첼로를 위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특이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바로 <스파의 추억, Op. 2>(Souvenir de Spa: 1844)이죠. 세르베가 스파를 좋아했던 걸까요? 사실 ‘스파’는 벨기에 동쪽 독일 접경 부근의 소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가 바로 이 도시 이름에서 온 것이죠. 이곳의 광천수는 옛 로마시대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세르베도 1840년에 스파를 처음으로 방문한 후 몹시 만족하여 이곳의 인상을 첼로를 위한 환상곡으로 표현했습니다.

<스파의 추억>은 본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지만 피아노 파트가 현악 앙상블이나 관현악으로 편곡되어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르베는 작품의 수에 비해 잘 연주되고 있지는 않아서 현악 앙상블로 연주하는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겠군요. 작품명으로 검색하면 영상은 없지만 더 좋은 음질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 : youtu.be/-jmhR465TTI

> 거슈윈 : 파리의 아메리카인 (1928)

‘미국음악’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포크송, 마이클 잭슨, 브로드웨이 등등 좋아하시는 음악 위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재즈를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즈의 기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서아프리카에 뿌리를 두었을 독특한 음계와 독특한 리듬으로 자신의 애달픈 처지를 노래한 ‘블루스’와, 정박의 규칙적인 리듬을 갖는 간단한 반주에 이와 어긋나도록 멜로디



4. <피렌체의 추억>을 연주하는 JANINE JANSEN과 친구들
5.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6. 이스턴 실내악 축제에서 연주하는 <스파의 추억>
7. 아드리앙-프랑수아 세르베
8. <파리의 아메리카인>에 등장하는 경적
9. 조지 거슈윈

를 연주하는 '래그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20세기가 되어 이 둘이 혼합되고 즉흥연주를 중요시하면서 '재즈'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주요 항구에 금주령을 내리게 되고,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의 음악가들은 유흥 문화의 쇠퇴로 미시시피강을 타고 시카고로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동쪽으로도 뻗어 나가 뉴욕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전쟁이 재즈를 퍼뜨린 계기가 된 셈이죠. 전쟁이 끝나고 1920년대가 되어 '재즈의 시대'라고 불리는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뉴올리언스-시카고 재즈와 뉴욕 재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으로 대표되는 뉴올리언스-시카고 재즈는 즉흥을 중요시했으며, 듀크 엘링턴으로 대표되는 뉴욕 재즈는 빅밴드를 위한 편곡을 중요시했죠.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 : 1898~1937)이 활동을 시작하던 1920년대 뉴욕의 음악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빅밴드가 이끄는 재즈와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이 두 기둥이었죠. 거슈윈은 1919년에 <스와니>를 발표하여 빅히트를 친 이후 1933년까지 열다섯 편의 뮤지컬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며 최고의 흥행사가 되었습니다. 1925년 7월 20일 타임지의 표지모델이 되기도 했고, 럭키 스트라이크의 담배 광고 모델로 등장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았죠. 또한 재즈 아티스트로서 재즈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즈는) 바호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음표를 사용합니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미국 고유의 성취물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클래식 작곡가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 불랑제와 모리스 라벨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불랑제는 이미 완성되어있는 거슈윈의 재즈 스타일이 자신의 가르침으로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그의 부탁을 거절했으며, 라벨은 "당신은 이미 거슈윈으로서 일류인데 왜 라벨의 이류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면 그가 재즈와 클래식의 위대한 만남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 : 1924)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거절 덕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관현악곡, 협주곡, 실내악, 피아노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나디아 불랑제(Nadia Boulanger : 1887~1979)는 파리 음악원의 유명한 작곡 교수였습니다. 코플란드, 앤타일, 번스타인, 피아솔라, 엘리엇 카터, 디누 리파티, 바렌보임, 필립 글래스 등 수많은 거장들이 그녀를 거쳐 갔습니다. 거슈윈도 그녀를 찾아 1928년에 파리를 방문했던 것이죠. 당시 파리는 신문물의 성지였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에펠탑, 수많은 자동차,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프랑스는 18세기 후반 시민혁명 후 약 100년 동안 공화정과 부르봉 왕조, 나폴레옹 일가가 약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지다 1890년에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하고 제3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안정되자 과학과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게 되면서 유흥문화도 빠르게 퍼져 갔는데요, 이 시기를 'belle epoch'(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파리에서는 세계 첫 영화가 상영되었고, 미국보다도 빨리 자동차와 비행기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유명한 '물랭루즈'도 바로 이 시기의 산물이죠. 그러다 보니 뉴욕커의 눈에도 파리는 미래도시와 같은 인상을 준 것이죠. 물론 이러한 좋은 시절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전쟁 이후 파리는 이러한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거슈윈은 불랑제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뉴욕 촌뜨기(?)가 바라본 미래도시 파리의 이미지를 관현악곡 <파리의 아메리카인>(An American in Paris : 1928)에 담았습니다. "이 곡의 목적은 파리를 방문한 미국인이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소음을 듣고 프랑스의 분위기를 흡수하면서 받은 인상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곡에는 불협화음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자동차 경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관현악곡에 경적소리라니! 특이하죠? 하지만 당시 다다이즘의 산실이었던 파리에서는 그리 특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릭 사티(Erik Satie : 1866~1925)의 <파라드>(Parede : 1917)나 조지 앤타일(George Antheil : 1900~1959)의 <기계적인 발레>(Ballet mécanique : 1925) 등 악기로 생각되지 않았던 물건들로 연주하는 음악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슈윈의 음악이 가진 현실적 감각은 오늘날에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 : youtu.be/EGT00Oiascg